

일 주 문



민주평통 불우이웃돕기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11월 30일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어려운 가족 100세대에 김치 500포기를 나눠줬다.



일타 스님 14주기 추모다례재 영천 은해사 주지 단관 스님은 11월 24일 동국당 일타 대종사 제14주기 추모 다례재를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사전에서 봉행했다.



군산불교시암연합회장 선출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은 12월 3일 동국사에서 열린 군산불교시암연합회 회의에서 차기 시암연합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비구니계 원로 지명 스님 입적



비구니계 원로인 경기 용인 화운사 능인선원장 지명 스님이 12월 4일 입적했다. 세수 93세, 법랍 80세. 1921년 수원에서 태어난 지명 스님은 1932년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42년 석우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았다. 1953년 충남 서산 개심사 주지를 맡아 사찰 복원 불사에 매진했으며, 1962년 화운사 주지를 맡은 이후 재단법인 능인학원을 설립해 비구니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전국 비구니회 3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8일 용인 화운사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엄수됐다. (031)335-2576

제 2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불교언론인상 이동식 조계종 미디어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는 제2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총무원 문화부장 해일스님은 “올해는 지난 1993년 첫 시상식을 가진 불교언론문화상이 성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첫 해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배출돼 불교위상을 높이고 언론문화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EBS 다큐프라임 ‘천장(天葬) (2부작)이 수상 영광을 안았다. (사진)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 취재 2부(안익수 하정은 임태규) ‘특별기획 한국불교20년 후를 생각 한다’ 등이 수상했다. 불교언론인상은 이동식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전 KBS 기자, 특별상은 아침해 감독의 다큐영화 ‘길 위에서’가 수상했다. 정혜숙 기자

“종무행정 전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도선사 신임 주지 도서 스님



“도선사가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종무행정의 전산화입니다. 요즘은 사찰도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신도들에게 신뢰도 줄 수 있고 재정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사부대중들이 편하게 종무행정을 볼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도선사 신임 주지 도서 스님은 12월 3일 종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도서 스님은 “도선사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사찰임에도 지금까지 합리적인 종무행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늦어도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찰재정의 투명화가 이뤄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소임을 새로 맡은 도서 스님의 각오는 남달랐다.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산문 밖을 안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신도들과 함께 경내에 머물면서 기도 정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도 내실을 다지기 위해 1년간 회나 종단 대소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렸

1년동안 산문밖 나가지 않을 계획 지역 포교당 개설로 포교영역 확대 전산식 비용으로 자비의 쌀 보시해

습니다. 1년 동안 신도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림을 살다보면 절 내 모든 일들이 파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라고 계획을 털어놓았다.

또한 도서 스님은 사찰의 모든 업무 결정도 주지 1인 중심체제에서 탈피해 대중들이 모여 대중공사를 통해 결정해 나가고, 각 부

서별로 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 스님은 문중 스님들을 살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청담 스님 문중에서 제가 3대째로 넘어온 첫 주지입니다. 지금 문중 스님들이 한 50분 되는 데 60~70대가 되도 문중사찰이 없어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고, 수행할 곳이 상형입니다. 지역 포교당을 여러 곳 개설해 문중 스님들이 편안히 포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스님은 평택에 있는 도선사가 설립한 청담종교도예안 확보를 통해 지역 사학 명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서 스님은 전산식 비용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보시했다. 도서 스님은 12월 3일 경내 호국참의원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품’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서 스님은 쌀 20kg 333포대 상당의 1500여 만원을 박경수 강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전달식 후에는 도선사 소임자 임명장 전달식도 이어졌다. 부주지에는 현관 스님, 기획실장에 미등 스님, 교무국장에게 도권 스님, 재무국장에게 도용 스님, 사회국장에게 도법 스님, 포교국장에게 모수 스님 등이 임명됐다. 김주열 기자

군종교구 특전사령부 법당 상량식



특전사령부(호국사자사 주지 법사 진상 김창모)는 이천 법당(경기도 이천) 상량식을 12월 5일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 법회는 특전사 이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법당 불사에 매진해온 관계자들의 노고 치하와 원만 불사 회향을 위해 실시됐다. 상량식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특전사 불자 간부 및 병사, 이천시암연합회 스님, 재경지역 군승법사, 일반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동극 공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불교아동학과 학생들이 12월 5일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동극’ 공연을 펼쳤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학생들은 학과 정기학술제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동극 ‘엄마와 여섯 친구들’, ‘곰강이의 하루’ 두 편을 장애우들을 위해 펼쳤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나정 교수는 “복지관에서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한 장애우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 무척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동극 ‘곰강이의 하루’는 동선이 주관한 제9회 한국문화언어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대구 해운정사 송년 화합 한마당



대구 송현동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12월 1일 호텔대구에서 제4회 송년 화합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종도스님들과 신도 300여 명이 동참한 이 행사는 관음신도회, 취산승가회, 범문도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는 1부로 신도회 조태흠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영산 합창단이 ‘해탈의 기쁨’ 부처님 감사합니다’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다. 이후 청담 스님, 성덕 스님의 집전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삼신이운식에 이어 관음회 윤종희 회장 외 5명의 보살이 육법공양을 올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몽골 청년 포교 위해 역경사업 도와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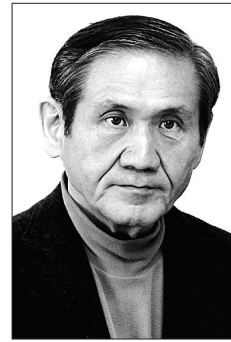
<금강경> 번역 자문 구하러 방한한 엔호바야르 前 몽골대통령

2006년도 만해대상 포교부문 수상자가기도 한 남바린 엔호바야르 前 몽골대통령이 12월 4일 금강경 번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 화계사를 찾았다. 엔호바야르 前 몽골대통령은 몽골에서 현재 역경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계종 표준금강경을 몽골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국민의 90%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다. 하지만 경전 대부분이 티베트어와 고대 몽골어로 쓰여 있어 몽골 불자들이 경전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엔호바야르 前 대통령은 이날 “몽골 불교 경전 대다수가 옛 언어로 쓰여 있어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현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 직접 <금강경>을 현대 몽골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역경사업은 몽골 청년들을 위한 저의 사회적 회향”이라고 밝혔다.

엔호바야르 前 대통령은 몽골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전통문화인 불교를 보다 국



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엔호바야르 前 대통령은 “몽골은 예로부터 한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특히 스님과 사찰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또 우랄 알타이어계로 역경사업에도 한국의 역경과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타계

2004년 만해평화대상 수상

넬슨 만델라 前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2월 5일 향년 95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前 대통령은 1918년 7월 18일 남아공 동남부 트란스케이의 시골마을 음베조에서 템부족 추장 가문 후손으로 태

어났다. 25세 때인 1943년 당시 민주화 투쟁의 중심인 ‘아프리카민족회의’에 가입, ‘ANC 청년동맹’ (ANCYL) 창립멤버로 저항운동을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백인정권의 흑백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했고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1993년에 노



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만해평화대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드니 바파나 쿠베카 주한 남아공 대사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만해대상은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진로·적성·상담 안내

C.A.C 분석서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담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견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흥연 (010-7925-4749)

인재 양성



동방대문화교육원 2014년 학습진로상담사과정 모집

▶ 3월 개강 ◀

- ◆ 저서 : 규명 1권 : 명리입문자용 (한솔미디어) 규명 2권 : 명리상담술 (한솔미디어) 규명 3권 : 진로와 전공 (한솔미디어) 실천성명학 (상원문화사)

-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금요일(오후 5시~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정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li> <li>●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li> <li>●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li> <li>●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li> <li>※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li> </ul>	8주 과정 토요일반

-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순환기성 질량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